

남구에 잠든 소금밭의 추억, 이제는 깨울 때다

■ 용호동 분개염전을 아십니까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단지를 걷다보면 분포 초등학교, 분포 고등학교, 분포 우체국 등 '분포'라는 지명을 쉬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분포문화체육센터와 분포도서관까지 문을 열었다.

그런데 용호동에 사는 주민들조차 '분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분포는 무엇일까? 분포는 '분개'와 같은 말이다. '분(盆)'은 소금을 굽던 가마를 뜻한다. 포(浦)는 조수가 드나드는 곳으로 우리말로 '개'라고 한다. 그러므로 분포는 소금을 굽던 곳가의 의미로서 소금밭을 뜻하는 말이다. 조선시대 염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소금밭을 조리던 '가마'이다. 가마를 뜻하는 한자가 바로 '부(釜)'와 '분(盆)'이다. 이런 한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다면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 자리로 추정할 수 있다.

용호동의 분포에서는 오랫동안 염전이 운영되었다. 동래 주민들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소금을 공급했으니 아주 고마운 짠터였던 곳이다. 서해안 염전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 생산지'라고 하면 대개 천일염전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천일염 생산 방식은 구한말에 들어온 것으로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갯벌에서 짬뽕을 만든 뒤에 끓여서 생산한 자염(煮鹽=煎熬鹽)을 먹어왔다. 이런 자염밭은 천일염전처럼 타일이나 고무판이 깔려 있지 않았다. 그냥 갯벌이 염전이였다. 하지만 자염전(煮鹽田)에서는 반드시 소금물을 끓여서 만들어야 하므로 소금가마가 꼭 구비되어야 할 시설이었다.

조선시대 동래 고지도를 살펴보면 용호동 쪽에 '분포(盆浦)'라는 지명을 써 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용호동을 소금 굽던 곳으로 인식했다. 구전에 따르면 약 4백년 전, 대연동 석포마을을 동쪽으로 소금밭을 처음 개발하였으며, 이곳을 '사분개(四盆浦)'라고 불렀다고 한다.

각종 문헌에서도 최소한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이 일대에 소금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동래현 남쪽에 염소(鹽所)가 1개 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분포 염전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 후기 동래 지역에서는 남촌(南村)이 대표적인 소금생산지가 되었다. 예컨대 『동래부읍지』에서는 동래 지역에 65개의 소금가마가 있는데, 그중 31개가 남촌에 있다고 하였다. 남촌은 현재 부산시 남구 일대이므로 남촌의 염전이 라면 분개염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구한말 분개염전은 식민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제염업 시험의 교두보로 전락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맞은 일본 제국은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이 필요했다. 이때 일제가 눈을 돌린 곳이 소금이 생산되는 염전이었다. 염전을

무한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재원으로 본 것이다. 일제는 먼저 조선의 전역에 대해서 염전과 제염업을 조사했다. 1907년 편찬된 『염업조사』에서는 약 2만평의 용호동 소금밭에서 310톤의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기록하였다. 일제는 분개염전 일대를 염업 시험장으로 선정하고, 총 7123평에 이르는 염전 공사에 착공하였다. 일본식 염전과 한국식 염전뿐만 아니라 양자의 절충식 염전을 설치하여 소금의 품질과 생산량을 비교했다. 일제는 이곳에서 조선 염업을 개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염 기술의 변화를 꾀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시라이 형제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목이 좋은 분개염전을 차지하였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분개염전은 민족의 아픔을 겪어왔지만 한 번도 소금 생산이 중단된 적은 없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몰려간 뒤에는 이규정을 비롯한 한국인이 다시 분개염전의 주인이 됐다. 당시는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제염업이 일시적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1950년

용호만 일원은 거대한 소금생산지

가마에 바닷물 끓여 소금 정제

고려말부터 생산·해방이후 전성기

60년대 매립 인해 추억속으로

대 이후로 서해안에 지나치게 많은 천일염전이 설치되어 소금 부족이 아닌 소금과잉을 고민하게 되었다. 정부는 염전의 정리에 적극 나섰는데 자염전은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광활한 염전은 매립만 하면 공업과 주거 단지로 쓰기에 좋은 장소였다. 1960년대 분개염전 자리에 하수처리장이 건립되었고, 이후에는 동국제강이 들어서 소금밭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반백년이 흐른 지금은 용호동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토박이들의 추억 속에 어렴풋이 분개염전이 남아 있다. 오직 그들만이 부경대에서 설치일까지 이어졌던 아름다운 바닷가와 한적한 염전을 회상할 수 있다.

분개염전은 소금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일대에 이를 일리는 안래관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은 아쉽다. 부산에 염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의 큰 자원이 될은 물론이다. 아파트 대단지 아래 잠들어 있는 소금밭의 이야기를 할 때다.

류승훈(부산시 학예연구사·'작지만 큰 한 국가, 소금' 저자)



현재 지도 위에 표시한 분개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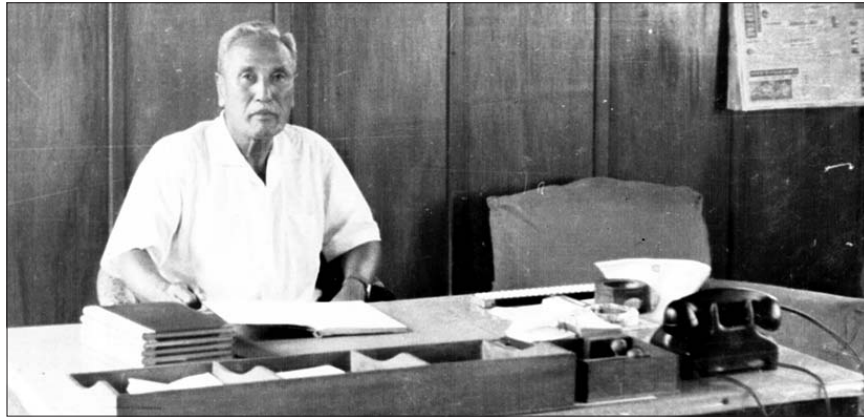
남구 일원을 그린 조선시대 지도로 '소금 가마가 있는 곳'이라는 뜻의 분포(盆浦)가 표기되어 있다.

분개염전 마지막 지킴이, 이규정 선생

해방 이후 염전 전성기 이끌어

분개염전을 운영했던 이규정(1899~1977)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 염업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좌천동에서 태어난 그는 한때 울산과 만주에서 활동을 하였다. 해방이 되자 부산으로 돌아왔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소금 기근에 시달렸다. 이규정은 자주 경제를 구현하고, 소금을 자급자족하는 방법으로 분개의 전오염(煎熬鹽-煮鹽)에 주력했다. 그는 수입염에 의존하다가 국산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소금의 자급자족과 독립 생산이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다. 선생은 분개염전에서 전염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 전매국장을 역임했던 이분해씨는 "특히 이규정 씨는 염업의 개량과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그의 포부를 토로하고, 재래식 제조방법을 지양하고 많은 연구와 과학적인 실험도 계속하였다"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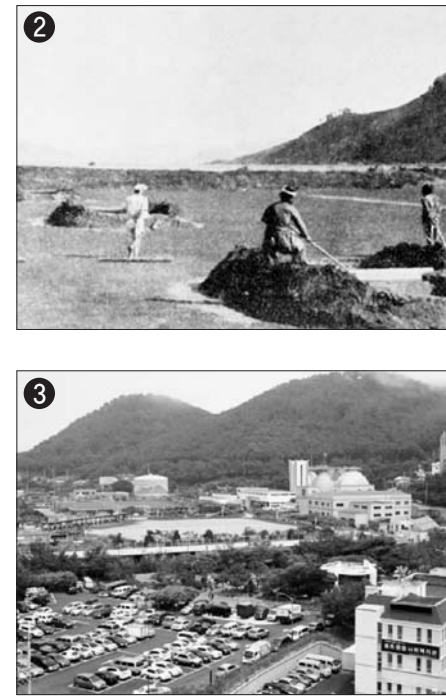
그는 대한염업조합연합회의 창립에도 큰 공헌을 했다. 1948년 2월 대한염업조합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직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부회장을 맡아 4년간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서해안에 대량으로 천일염이 생산되면서 자염업은 크게 위조하였다. 정부의 염업 시책도 천일염 중심으로 흘렀다. 당시



해방 이후 분개염전의 황금기를 이끈 이규정 선생이 염전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다.

소금은 전매상품이었는데 자염은 수납가가 낮아 생산원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선생은 분개염전 외에도 목포에서 일시적으로 천일염전을 운영하였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는 우리나라 제염업의 자존심이자 자염업의 마지막 지킴이였다. 그는 '국염증산가(國鹽增産歌)'를 손수 지어 항상 방에 걸어두고 보았다고 한다. "금수강산 삼천리에 광복 기쁨 넘칠 때 우리 생령 지켜주는 국산 소금 확보하고 자주 경제 재건하여 조국경제 구출하자"는 가사 속에는 우리나라 제염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정신이 잘 드러난다. 대한염



① 해방 이후의 용호동(당시 용호리) 분개염전. ② 일제강점기 분개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모습. ③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서 염전이 있던 자리(현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체육공원)를 촬영한 사진.



1957년 대한염업조합연합회 염전지에 박준기 연합회 상무이사(가) 쓴 염전신설 발전에 이끈 이규정 선생의 노고에 감사하는 글.

염조합연합회의 상무이사였던 박준기 씨는 "이규정 씨가 부르는 국산염의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아로새겨 있다"고 하였다. 류승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함께합시다

동명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 간	접 수	문의처
매 1~2 호	서예교실	목	10:00~12:00	접수중	607-6602
	양재출판교실	금	10:00~13:00	접수중	
	컴퓨터교실	수, 목	10:00~12:00	선착순 (대기열수)	
	요가교실 I	화, 목	10:00~11:00	매달 마지막 목요일 (구)대연동 주민센터 1층	
	요가교실 II	화, 목	11:00~12:00	선착순 방문접수	
	중국어교실	목	13:00~15:00	접수중	
	노래교실	수	13:00~15:00	접수중	
	풍물교실	화	10:00~12:00	7월중 접수예정	
	서예교실	화	13:00~15:00	"	
	페브릭(천)아트	수	10:00~12:00	"	
매 3 호	생활영어교실(초급)	월	10:00~12:00	"	607-6642
	생활영어교실(중급)	수	10:00~12:00	"	
	단요가(A)	월	09:30~10:30	"	
	단요가(B)	월, 목	10:30~11:30	"	
	단요가(상인)	월, 수	20:00~21:00	"	
	라인댄스(초급)	화, 금	10:00~11:00	"	
	문인화교실	목	14:00~16:00	"	
	영어인 중국어교실(초급)	금	13:00~15:00	"	
	영어인 중국어교실(중급)	목	10:00~12:00	"	
	넌타반(오동복)	화	14:00~15:00	접수중 626-9663	
매 4 호	스포츠댄스	화, 금	11:00~12:00	접수중	607-6676
	노인대학	목	13:00~17:00	접수중	
	서예한자교실	월	10:00~12:00	대기접수	
	라인댄스교실	월	10:00~12:00	대기접수	
	풍물교실	월, 수	14:00~16:00	대기접수	
	문인화교실	화	13:00~15:00	대기접수	
	컴퓨터교실	화, 목	10:00~12:00	마감	
	요가교실(초급)	화, 목	10:00~11:00	대기접수	
	요가교실(중급)	화, 목	11:00~12:00	대기접수	
	노래교실	금	10:00~12:00	대기접수	

동명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 간	접 수	문의처
매 5 호	스포츠댄스	월, 수	10:00~11:00	상시접수	607-6688
	건강체조(중급)	월, 수	13:00~14:30	상시접수	
	건강체조(초급)	월, 수	15:00~16:00	상시접수	
	어르신한글교실	화, 금	화 10:00~13:00 금 10:00~12:00	상시접수	
	풍물교실	수	10:00~12:00	상시접수	
	문인화교실	목	10:00~12:00	상시접수	
	생활과학교실	목	15:00~16:30	상·하반기 접수	
	요가A	월, 수	09:00~10:00	접수마감	
	요가B	월, 수	10:00~11:00	접수마감	
	밸리댄스	월, 수	11:00~12:00	접수중	
매 6 호	한지공예	화, 수	13:00~14:30	접수중	607-6705
	한국무용(초급)	목	14:00~15:00	접수중	
	한국무용(중급)	목	15:00~16:00	접수중	
	한국무용(고급)	월	14:00~16:00	접수중	
	노래교실	목	10:00~12:00	접수중	
	일본어	금	10:00~12:00	접수중	
	서예(한글교실)	금	10:00~12:00	접수마감	
	민요장구교실	월	10:00~12:00	접수중	
	일어초급교실	화, 목	10:00~11:00	접수중	
	요가교실	화, 목	11:30~12:30	접수중	
매 7 호	컴퓨터중급교실	화, 목	13:30~15:30	접수중	607-6722
	시니어라인댄스교실	수	10:00~12:00	접수중	
	생활한자교실	수	10:00~12:00	접수중	
	청소별태권도교실	월, 수, 금	18:00~19:00	접수중	
	생활과학교실	토	10:00~11:30	접수마감	
	컴퓨터교실	월, 수	14:00~16:00	접수중	
	사군자교실	월, 수	10:00~12:00	접수중	
	풍물교실	월, 목	월 15:00~17:00 목 14:00~16:00	접수중	
	라인댄스교실	화, 목	10:00~11:00	접수중	
	어르신노래교실	금	13:00~15:00	접수중	
매 8 호	신나는 건강댄스	월, 수	13:00~14:00	접수중	607-6745
	요가 I	월, 수	10:30~11:30	접수중	
	요가 II	화, 목	11:00~12:00	접수중	
	플라워아트	화	11:30~13:30	접수중	
	서예	수	13:00~16:00	접수대기	
	힐링!오카리나	수	10:00~12:00	접수중	
	캘리그래피	목	10:00~12:00	접수대기	
	체력다련실	월~금	06:00~20:00	접수중	

동명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 간	접 수	문의처
매 9 호	사주교실(성인)	월	10:30~12:30	접수중	607-6785
	서예교실(성인)	화, 목	10:00~12:00	대기접수	
	풍물교실(성인)	수	10:00~12:00	접수중	
	생활영어교실(성인)	금	10:00~12:00	접수중	
	주산·암산교실(1차) (7세~초6)	목	16:00~16:50	대기접수	
	주산·암산교실(2차) (7세~초6)	목	17:00~17:50	대기접수	
	가베교실(1차)(5~6세)	토	12:00~13:00	대기접수	
	가베교실(2차)(7세)	토	13:00~13:50	접수 중	
	가베교실(3차)(8~9세)	토	14:00~14:50	접수 중	
	풍물교실	월, 금	10:00~12:00	접수중	
매 10 호	토탈공예교실	월	14:00~16:00	접수중	607-6806
	요가교실 I	화, 목	09:30~11:00	접수중	
	요가교실 II (현대파크)	화, 목	09:30~11:00	접수중	
	영어교실	화, 목	14:00~16:00	접수중	
	생활목공예교실 (광안공예연구소)	수	10:00~12:00	접수중	
	사물놀이	매주 월, 수	14:00~16:00	접수중	
	서예교실	매주 월, 수	10:00~12:00	접수중	
	단학교실(초급)	매주 월, 금	10:00~11:00	접수중	
	단학교실(중급)	매주 월, 금	11:00~12:00	접수중	
	요가교실	매주 화, 목	09:00~10:00	접수중	
매 11 호	노래교실	매주 화, 목	10:30~12:30	접수중	607-6826
	도예교실	매주 수	09:30~11:30	접수중	
	스포츠댄스	화, 금	10:00~11:00 11:00~12:00	모집마감	
	요가	월, 수	10:00~11:00 11:00~12:00	모집마감	
	하모니카	목	10:00~12:00	모집마감	
	서예교실	월	10:00~12:00	접수중	
	주산·암산 교실	화	14:00~16:00	접수중	
	문인화교실	수	10:00~12:00	접수중	
	요가교실	수, 금	12:30~13:30	접수마감	

동명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 간	접 수	문의처
매 12 호	스포츠댄스교실	화, 금	12:50~13:50 14:00~15:00	접수중	607-6876
	노래교실	목요일	13:30~15:30	접수중	
	건강에어로빅교실	화, 목	09:00~10:30	접수중	
	건강요가교실	화, 목	10:30~12:00	접수중	
	건강노래교실	수	10:00~12:00	접수중	
	소리놀이 다타교실	금	13:30~15:30	접수중	
	주민체력대련장	월~토	06:00~20:00	주민체력대련장 1층	
		토	09:00~17:00		
생지도서평생학습관	월~금	09:00~18:00	상시 대출 가능		
매 13 호	문인화교실	월, 수	09:30~11:30 14:00~16:00	접수중	607-6902
	단학교실	수, 목	09:00~10:00	접수중	
	양재교실	목	10:00~13:00	접수중	
	컴퓨터교실(초급)	금	10:00~11:30	대기	
	컴퓨터교실(중급)	금	11:30~13:00	대기	
	즐거움 웃음교실	월	14:00~16:00	접수중	
	어르신글쓰기교실	월, 금	11:30~12:30	접수중	
매 14 호	노래교실	매주 월, 목	10:00~12:00 목 14:00~16:00	접수중	607-6926
	국악교실	매주 화	10:30~12:30	접수중	
	요가교실	매주 수, 금	9:30~11:30	접수중	
	문인화교실	매주 월	14:00~16:00	접수중	
	서예교실	매주 화	14:00~17:00	접수중	
	사물놀이교실	매주 화, 목	10:00~12:00	접수중	
	요가교실(초급)	매주 화, 금	12:30~14:00	접수중	
	노래노래교실	매주 목	10:00~12:00	접수완료	
매 15 호	일본어교실	매주 월, 수	10:00~12:00	접수중	607-6942
	노인컴퓨터교실	매주 월, 금	09:00~11:00	접수완료	
	통영교실	월, 목	10:00~12:00	상시	
	건강요가교실(초급)	월, 목	11:00~12:00	상시	
매 16 호	건강요가교실(중급)	월, 목	10:00~11:00	상시	607-6964
	라인댄스	화, 목	15:30~16:30	상시	
	컴퓨터교실	목	10:00~12:00	마감	

※ 접수대기: 결원발생시 수강가능